

Chevron, 대대적 인력감축 추진

정유 · 마케팅 · 운송 부문 1000명 감원 ... 정유 영업이익 급감

미국 2위의 석유기업인 Chevron이 1/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정유 부문을 비롯해 마케팅, 운송 부문에서 최대 1000명 정도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vron이 미국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원을 2008년 실시하고 2009년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원 인력 중 약 300명은 해외 인력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Chevron은 5월2일 1/4분기 순이익이 51억7000만달러(주당 2.48달러)로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를 주당 8센트 웃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원유 가격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정유부문 영업 이익은 2억5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4% 급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9>